

보도참고자료

◇ "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집단 범위 결정" 보도자료 (2002.2.16)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결정된 2001년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집단 등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"총자산 2조원 이상"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2002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집단(2003년에 작성하여 제출)은 200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나,

○ 지난해 선정기준이었던 2000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2개 기업집단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됨

※ 지난해에는, 2001년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될 수 있었던 기업집단이 총 33개였으나,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기업집단을 제외하면 실제 작성대상기업집단은 14개였음

○ 33개 기업집단

· 삼성, 현대, LG, SK, 현대자동차, 한진, 포항제철, 롯데, 금호, 한화, 두산, 쌍용, 현대정유, 한솔, 동부, 대림, 동양, 효성, 제일제당, 코오롱, 동국제강, 현대산업개발, 하나로통신, 신세계, 영풍, 현대백화점, 동양화학, 대우전자, 태광산업, 교합, 아남, 새한, 진보

○ 14개 기업집단: 실제작성기업집단

· 삼성, 현대, LG, 한진, 롯데, 쌍용, 한솔, 동부, 동양, 코오롱, 영풍, 태광산업, 새한, 진보

報道資料生産課：金融政策局 證券制度課(2110-2363~2365)

증권제도과장 임종룡, 사무원 김명규